

## 노봉 김정의 목민관으로서의 삶\*

장 인 진\*\*

1. 머리말
2. 노봉의 생애
3. 현실인식과 목민관적 실천의지
4. 마무리

### 국문초록

蘆峯 金倬은 사서삼경과 성리학 관련 책을 탐구하며,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것을 학문하는 자세로 삼았다. 9세의 어린 나이에 고을의 백일장에 장원하여 수령을 놀라게 한 바 있고, 약관이 조금 지난 나이에 이미 학문 뛰어난 선비로 조정에 추천된 바 있으며, 출사하여 승정원 假注書로서 史草를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속기하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함경도 도사로 있을 때는 災傷을 잘 분석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났다. 관직에 물러나서는 살고 있는 곳 주위에 方塘을 만들고 산수 자연을 즐기며 朱熹 시에 차운하였고, 「무이도가」에 차운한 「오

\* 이 논문은 2020년 봉화문화원, 제4회 역사인물 학술발표회(코로나로 미개최) “노봉 김정의 생애와 현실 대응”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자문위원 / injin0222@daum.net

계구곡] 10수를 지어서 인간과 자연 간의 합일을 이루고자 했다.

4개 고을의 수령을 맡았는데 목민관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추었다. 그는 사람됨이 바르고 강직하며, 엄정하고 청렴하며 효행이 있었다는 평어가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고, 강릉부사로 있을 때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는 最[제일 잘하는 등급]의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이 탁월하였다. 강계부사로 있을 때는 권선징악을 표방하며 부역 균등과 균량미를 비축하였고,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때에는 손수 祈雨文 6편, 祈晴文 3편을 남기는 등 수령으로서 백성을 위하고자 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제주목의 官學인 삼천서당을 설립하여 일반 평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고, 禾北浦의 축항 공사를 추진할 때는 스스로 돌을 지고 나르는 등 백성의 고된 삶을 직접 체험하였다. 또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은 섬사람을 위하여 제문을 지어서 원혼을 달래는 등 백성을 공훈히 여기는 모습도 보였다.

제주목사 임기를 마치고 죽은 이듬해에 호남어사가 노봉의 善政한 사실을 조정에 褒啓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 일찍이 청백리 錄選案에 들었으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지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는 南人이었으므로 아마 黨色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후일 영주 梧川書院, 제주 象賢祠 등에서 제향했으므로 후인들이 그 업적을 기린 것이다.

노봉의 현실인식은 민본을 바탕으로 한 愛民에 있었고, 이름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山水之樂을 추구하였으며, 敬義 가운데서 의로움을 우위에 두었고, 자손에게 義方으로 훈계하였다. 퇴계학맥을 계승한 선비였기에 퇴계가 그 손자들에게 가르친 학습방법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손 교육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노봉의 가계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기도 했다.

## ● 주제어

노봉, 김정, 목민관, 제주목사, 오계구곡, 무이도가, 주희, 퇴계

## 1. 머리말

당나라 王勃의 「滕王閣序」를 살펴보면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그 땅이 신령스럽기 때문이다[人傑地靈].”라는 말이 나온다. 대체로 땅이 신령스러우면 사람이 반드시 걸출하겠고, 사람이 걸출하면 땅이 더욱 신령스러워지는 것이다. 이른 바 ‘人傑地靈論’ 이 말은 좋은 산천의 기운이 서린 곳에는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梧麓의 행정구역은 옛날 榮川郡[영주군]의 관할이었다. 숙종 때는 영천군 오록면이었는데, 1906년에 봉화군에 편입되어 몰아면 오록리가 되었다. 이 마을의 풍수 형국을 살펴보면 ‘蓮華浮水形(연꽃이 물위에 오롯이 떠 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자손이 원만하고 고귀하며 화려하다고 하였다. 많은 인재가 배출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인지 이 마을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노봉은 27세가 되던 1696년 10월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 해 겨울에 오록리에 터를 잡고서는 새 집을 지어서 이거하였다. 마을 동편에 소나무를 심고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물길을 서편으로 돌리며, 마을 앞 남쪽 水口에 석축을 쌓아 풍수적 비보를 하여 洞基를 굳혔으며, 그 후에 오록리 일대의 梧溪를 그 옛날 주희가 살았던 무이산의 일역으로 설정하고, 주희의 무이도가[무이구곡가]에 차운한 오계구곡가 10수를 지어서 주희를 숭모하였다.

노봉의 성명 김정에서 이름자 정(倣)에 대해서는 필자의 과묵한 탓이었겠지만 『강희자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벽자이다.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倣은 人政으로써 ‘사람의 정치’,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으니, 정도를 유지하며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는 이름과 상보적 관계인데 士達은 ‘선비로서 통달함’이라 하겠다. 이름을 벽자로 작명한 것은 당초부터 관인으로서 기대한 바가 있었을 것이니, 후대에 그는 발분하여 통달한 선비로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그 이름을 실천한 것이라고 본다.

노봉은 문과에 급제한 관인 학자이다. 당쟁이 심하던 시대에 출사와

은거를 반복하였는데, 관직을 맡으면 철저히 先公後私하는 자세로 임하였고, 4개 고을의 수령을 맡아서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니, 그 업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노봉은 문집을 남겼다. 문집은 1863년에 출제한 현손 金宗然의 後識를 붙여서 4권 2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권1에서는 시 247제 328수<sup>1)</sup>인데, 絶句<sup>2)</sup>가 203수로 가장 많다. 권2에서는 疏를 포함하여 啓辭, 議, 書, 雜著, 序, 記, 跋, 銘 등 55편이고, 권3에서는 箋, 禮狀, 상량문, 제문, 祈雨文, 祈晴文, 謁廟文, 告由文 등 36편이 들어 있다. 권4는 부록으로 타인이 쓴 글인데, 1796년에 증손 金相敏이 지은 家狀[1863년 문집 간행시 본문에 註를 달고 자손록 추가], 증손서 權載大가 지은 묘지명, 만사, 제문, 봉안문, 常享祝文, 褒諭文, 書啓, 追錄 등이 들어 있다. 이처럼 2책의 문집 외에는 별도의 필사본 유고, 고문서 등이 남아 있지 않다. 연구에 한계점이 있어서 아쉽다.

본고에서는 노봉의 문집을 중심으로 생애를 살펴보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참고하여 목민관으로서의 현실 인식과 실천 의지에 대하여 구명해 보기로 한다.

## 2. 노봉의 생애

### 1) 가계 검토

- 1) 전체 328首 가운데 五言絶句 33首, 七言絶句 170首, 五言律詩 44首, 七言律詩 81首로 나타난다. 이 중에 七言絶句가 170首(51.8%)나 되어 가장 많고, 五言絶句까지 합하면 203首이다.
- 2) 고팔미, 『중국근체시법론(절구)』, 『중국학』 29, 대한중국학회, 2007, 72쪽의 중국 인용문에 “近體詩體制, 以五七言絶句爲最尊 律詩次之 排律最下”라고 하였다. 즉 오·칠언절구가 한시 가운데 가장 존중받았다. 논문 92쪽을 요약하면 絶句는 음악과 관련이 있고, 편폭이 짧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다 그리기 어려우므로 말이 다한 듯하면서도 여운이 가늘게 이어져서 ‘意在言外’를 추구했던 것이다.

豐山 김씨의 시조는 고려 때 判相事를 지낸 金文迪이다. 그 아들 金永玄은 戶長中允을 지냈다. 증윤은 동궁의 관직으로 정5품이다. 그 아들 金有連은 神虎衛散員에 추봉되었다. 그 아들 金鍊成은 진사에 합격하였고 保勝郎將을 지낸 공신이다. 그 아들은 김합(金합[人+文+口+皿])인데 진사에 합격하였고 知肅川事[肅川知事]를 지냈다. 시조로부터 5세까지는 단선으로 내려왔다. 김합의 배위는 풍산 류씨로 恩賜及第한 柳伯의 딸이다. 그 아들은 金允德, 金允實, 金允堅 등이다.

셋째 아들 김윤견은 별좌를 역임하였는데 낭장을 지낸 宣公允의 딸인 보성 선씨에게 장가들어 아들 金安鼎과 金舜鼎을 두었다. 김안정은 三司左尹을 지냈고, 배위는 보성 오씨로 保勝別將을 지낸 吳順의 딸인데, 아들 金子良과 金子純을 두었다. 둘째 아들 김지순은 조선에 들어와서 軍器寺直長을 지내고 좌통례에 증직되었는데, 처음으로 서울 壯義洞에 살았다. 배위는 죽산 박씨로 별장 朴千年의 딸인데, 아들인 金從水, 金從石을 두었다.

김종석(1409-1439)은 別侍衛에 속했는데 31세에 졸하였고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춘천 박씨로 錄事를 지낸 朴良善의 딸이다. 그 아들 金徽孫(1438-1509)은 진산군수를 지내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여흥 민씨로 동지돈녕부사 閔孝悅의 딸이다. 그 아들은 金楊震이고 딸은 진사 琴元漢, 진사 朱炯, 대사헌 權敏手 등에게 출가하였다.

김양진(1467-1535)은 호가 虛白堂이며 1489년(성종 20)에 진사에 입격하고 1497년(연산 3)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著作, 부수찬, 부제학, 3도 관찰사,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과 덕행으로 세상에서 추앙을 받았고 청백리에 錄選되었는데 처음으로 안동 오미동에 거주하였다. 후일에 안동(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배위는 양천 허씨로 將仕郎 許瑞의 딸인데, 아들은 金義貞, 金順貞이고 딸은 奉事 李光弼, 진사 金胤宗, 李浚慶 등에게 출가하였다. 이준경은 호가 東臯인데 영의정을 지낸 명신이다. 풍산 김씨는 이때부터 대대로 유명한 인물이 나왔다. 한편 김순정의 손자 金壽賢은 호가 遁谷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좌참찬에 이르렀는데, 유연당 김대현의 일곱째 아들이자 재종질

인 金念祖를 후사로 삼았다. 또 김수현의 외손자 가운데는 남인 정치가로 이름난 좌의정 閔熙, 우의정 閔黼 형제가 있고, 외손서로는 남인으로 대사간을 역임한 매산 李夏鑣<sup>3)</sup>, 노론 정치가로 영의정을 역임한 徐文重 등이 있다.

김의정(1495-1547)은 호가 潛庵 또는 幽敬堂이며 1516년(중종 11)에 진사에 입격하고, 152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正字, 수찬, 세자시강원 司書 등을 역임하고 직제학에 증직되었다. 1859년(철종 10)에 이조판서에 加贈되었고 시호는 文靖公이다. 저서로 『潛庵逸稿』 5권 2책이 있다. 배위는 안동 김씨로 평양서윤 金璠(김상용·김상헌의 증조부)의 딸인데, 아들은 金農이고 딸은 沈守愼, 여강군 李鈞, 安祺, 도사 南响, 생원 鄭彦福 등에게 출가하였다.

김농(1534-1591)은 호가 華南이다. 벼슬은 掌隸院司議를 지냈고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안동 권씨로 군자감 첨정을 지낸 權鎰의 딸이다. 아들은 金大賢이다.

김대현(1553-1602)은 호가 悠然堂이고, 1582년(선조 15)에 생원에 입격하였으며, 벼슬은 산음현감에 이르렀다. 저서로 『悠然堂文集』 4권 2책이 있으며, 후일에 영주 鷗湖書院에 제향되었다. 배위는 전주 이씨로 修義副尉를 지낸 李纘金의 딸이다.

김응조(1587-1667)는 노봉의 증조부인데 호가 鶴沙이다. 서에 柳成龍, 여현 張顯光의 문인이며, 1613년(광해군 5)에 생원에 입격하고 1623년(인조 1)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한성부우윤에 이르렀다. 문장에 능했으며 저서로 『鶴沙先生文集』 9권 6책, 『四禮問答』 4권 2책 등이 있고, 안동 勿溪書院과 영주 義山書院에 제향되었다. 배위는 의성 김씨로 학봉 金誠一의 손녀이며 종사랑 金浚의 딸이다.

3) 매산 이하진은 星湖 李滉의 아버지이다.

노봉 가계도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金文迪 (判相事)	永玄 (戶長中允)	有連 (散員)	鍊成 (保勝郎將)	합 (知肅川事)	允堅 (別將)	安鼎 (三司左尹)	子純 (直長)	從石 (贈參議)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徽孫 (郡守)	楊震 (文,參判)	義貞 (文,文靖公)	農 (贈左承旨)	大賢 (生,贈參判)	應祖(鶴沙) (文,右尹)	時行 (贈吏議)	輝鳳 (武,備邊郎)	倣(蘆峯) (文,牧使)

노봉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그 증조부 김응조 형제 대에서 이미 문망이 뛰어나서 金奉祖(鶴湖, 문과 持平), 金榮祖(忘窩, 문과 參判), 金昌祖(藏庵, 진사 都事), 金慶祖(深谷, 생원 縣監), 金延祖(廣麓, 문과 正字), 金應祖(鶴沙, 문과 右尹), 金念祖(鶴陰, 생원 典籤, 出系), 金崇祖(雪松, 문과 注書) 등 여덟 형제 모두가 소과에 입격하였다.<sup>4)</sup> 그 중 다섯 형제는 문과에도 급제하여 세상에서 ‘八蓮五桂之美’의 가문으로 칭송되었다.

## 2) 수학과 의식 형성

金倣의 자는 士達, 호는 蘆峯 또는 陶沙居士이다. 할아버지는 이조참의에 증직된 김시행(1613-1689)이고, 아버지는 무과에 급제하고 備邊郎에 오른 김회봉(1643-1683)이며, 어머니는 봉화 금씨로 참봉 琴聖徽의 딸이다. 1670년(현종 11) 7월 18일에 경상도 榮川郡(지금의 영주)의 남쪽 鶴沙精舍에서 출생하였는데 재주가 출중하였다.

6세에 공부를 시작하여 曾先之의 『十九史略通攷』를 여덟 달만에 다 읽었고,<sup>5)</sup> 다시 반년이 되자 『通鑑』[통감절요] 1권(15책)을 다 읽었다고

4) 이상 노봉의 가계에 대해서는 金相敏 찬. 「蘆峯家狀」과 『豐山金氏世譜』를 참고하였다.

5) 金倣 저, 김익수 역, 『노봉문집』, 제주문화원, 2001, 하권 319쪽의 「家狀」을 보면 원문의 “八閱月 盡讀曾史”를 이 책에서는 “여덟 달만에 지난 역사를 모두 읽었고”로 번역되어 있다.

하였다. 7·8세에 文理가 통달하여 고시·고문에 두루 섭렵하였으며, 古風(古詩)의 장편을 지어 왕왕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9세 때에는 본 고을의 백일장에 수석을 하였는데도 끝자리에 앉게 하자, 그는 영천군수에게 “장원을 하였으니 끝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군수가 기특하게 여겨서 특별히 윗자리를 설치하고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당찬 의식이 보인다.

14세가 되던 때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상주 노릇 하기를 한결같이 성인과 같았다.

3년상을 마치고 16세가 되던 1685년에 梧陰 成文夏(1638-1726)에게 『주역』을 배웠다. 성문하는 퇴계학맥을 계승한 계서 成以性的 아들로, 1673년(현종 14)에 생원시 1등 3위로 입격하였다. 오음은 그 외삼촌 琴聖徽에게 배웠는데 금성휘는 노봉의 외조부였고, 노봉이 배울 당시에는 예안현 부포에 우거하고 있었다.<sup>6)</sup>

선생은 仁에 처하였다. 맑은 창 비자나무 책상에서 서책을 섭렵하며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였으며, 經傳에 드나들며 예악을 강론하니, 멀고 가까운 데서 찾아와 흠모하였다.<sup>7)</sup>

노봉은 어머니의 고종시촌인 오음을 아버지처럼 존경하였고, 오음 또한 일찍이 아버지를 여윈 그를 불쌍히 여기고 미혹함을 깨우쳐 주었다. 어느 날 오음 선생으로부터 『주역』 1질을 받고 공책[白冊] 두 권을 가지고 도산서원으로 가서는 겨우 보름이 지났는데, 베끼고 전부 외어서 돌아왔다. 이처럼 노봉의 암기력은 매우 뛰어났다.

노봉이 宣城에서 읊은 시 1수를 본다.

6) 노봉의 학문적 연원은 “이황(퇴계) - 정구(환강) - 성안의(부용당) - 성이성(계서) - 성문하(오음) - 김정(노봉)” 및 “이황(퇴계) - 금난수(성재) - 금개(망월헌) - 금성휘(낙포) - 성문하(오음) - 김정(노봉)”으로 파악할 수 있다.

7) 金倣, 『蘆峯先生文集』(목활자본, 1863년), 권3, 「祭梧陰成公文」. “先生處仁而宅晴窓 斐几獵涉黃卷玩索探討 出入經傳講藝絃歌 遠邇來慕.”



大野中分地勢寬 큰 들판 가운데서 나뉘어 지세는 드넓은데  
 長松簇立自成壇 큰 소나무 뿔뿔이 들어서서 저절로 단을 이루네.  
 雲橫陶嶺歸鴻遠 구름 비긴 도산(陶山)에 돌아가는 기러기 멀어지는데  
 日暮汾川古木寒 해지는 분천(汾川)의 고목은 추위에 떨고 있네.  
 洛水鳴波來枕席 낙동강 파도소리 잠자리에 들리는데  
 梧桐疎月上欄干 오동나무 사이의 성긴 달은 난간 위에 있네.  
 此間意味無人識 이러한 의취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으나  
 手執義經仔細看 주역(周易)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네.<sup>8)</sup>

노봉이 16세 무렵에 선성[예안]의 오음 선생을 찾아가서 배울 때 우연히 읊은 시이다. 주변의 도산과 분천을 자연에 비겨서 묘사하였다. 尾聯을 보면 爲己之學하는 자세와 『주역』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는 이후로 經書, 四子書와 성리학 제 서적을 탐구하고 朱子書를 읽는 데도 심력을 다하였다.

23세가 되던 1692년에 갈암 李玄逸이 조정에 건의하여 영남에서 학문 뛰어난 선비를 선발하려 할 때, 사람이 노봉을 추천하였다. 젊어서부터 기백이 있고 文望이 있었던 것이다.

27세가 되던 1696년에는 夏課의 覆試에 참여 하였고, 향시에도 합격하였으며, 이 해 가을에 진사 3등에 입격하였다.

진사에 입격한 그 해 겨울에는 榮川 蘆峯山 아래의 오록리에 터를 잡아 새 집을 지었는데, 이름을 望鶴齋라 하고, 손수 상량문을 지었다.<sup>9)</sup>

높은 산 큰 들판 가운데의 하늘이 만든 별천지에 밭을 매입하여 집을 지으니, 누가 나의 처소와 다를 것인가. ... 땅은 비로소 주인을 만나니 오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반평생 길을 헤매면서 여기저기에 거처를 옮긴 것을 탄식하고, 아들 넷이 처소를 얻어서 나눠 가짐을 기뻐하노라. ... 삼가 원하건대 상량한 후에는 기꺼이 선조의 유업을 이어 완성하였으니, 욕 끼침이 없고 실추함도 없이 가업이 계속 이어져서 매년 금년

8) 위의 책. 권1. 「宣城偶吟」.

9) 노봉은 이로부터 24년이 지난 1720년경에 새로운 집[新屋]을 짓고 상량문을 지었다.

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게 하고, 자손들이 번성하며, 항상 좋은 아들이 훌륭한 아들 낳기를 바라노라.<sup>10)</sup>

오록의 자연환경과 이곳에 터를 잡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말미에 가업을 잘 계승하며 훌륭한 아들 낳기를 염원하는 말을 덧붙였으니,<sup>11)</sup> 이곳을 풍수의 명당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薪潭에 누각[簾閣]을 짓고 서는<sup>12)</sup> 중형 金价와 더불어 경전을 강구하고 학문을 연마하는데 더욱 매진하였다.

노봉은 「교원의 제생에게 보인 글[脉校院諸生]」에서 공부할 때는 “묵은 견해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해야 한다(濯去舊見 以來新念)”<sup>13)</sup>는 황거 張載의 말을 주목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옛 것만 답습한다면 끝내 스스로 새로워지는 날은 없을 것이니, 공자가 ‘몹시 어리석은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교훈이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는가.”<sup>14)</sup>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사람이라도 공부에 매진할 사람은 옛 습관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생각[新意]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아! 나도 변화하지 않은 사람이다. 蘧伯玉이 60세에 변화했다는 것과 같이는 할 수 없으나, 내심 衛武公이 96세에 지은 懿戒를 흠모하고 새해를 맞이하니, 스스로 새로워질 생각이 가슴속에 잊히지 않았다.”<sup>15)</sup>라고 하였다. 위 무공은 역계시를 지어 스스로 경계한 사람이다.

10) 金做, 권3, 「望鶴齋上樑文」. “高山大野之內 天作別區 買田築室其中 誰爭我所 … 地始遇主 似有待於今時 歎半世之迷方 移寓處處 喜四男之得所分占 … 伏願上樑之後 青構肯堂 無忝無墜 家業繼繼 每使今年勝去年 瓜瓞綿綿 常要好子生佳子.”

11) 노봉이 훌륭한 아들을 염원한 것은 그의 「願當幽居記」에도 나온다.

12) 金做, 앞의 책, 권1, 「簾閣次曾王父[金應祖]松簷韻 并序」.

13) 『近思錄』, 권3, 致知에서 張載가 말한 구절임. 본래의 구절은 “濯去舊見 以來新念”이다.

14) 金做, 앞의 책, 권2, 「脉校院諸生」. “至老至死 只依舊 終無自新之日 孔聖不移之訓 豈不大可懼哉.”

15) 위의 책, 같은 글, “噫 余亦不移之人也 既不能如蘧伯玉之六十化 竊有慕於九十六之作懿戒 屬此新歲 自新之念 耿耿于中.”

또 거백옥은 “나이 육십이 되는 동안 육십 번이나 잘못된 점을 고쳤다 (蘧伯玉 行年六十而六十化).”라는 글이 『장자』의 「則陽」에 수록되어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였다.<sup>16)</sup>

노봉은 공자, 거백옥, 장횡거 등의警句를 취하여 ‘新意와 知非’ 즉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것을 학문하는 자세로 삼았다.

### 3) 과거와 관직 수행

노봉은 일찍부터 문명이 있었다. 1696년 10월 21일 진사에 입격한 후, 12년이 지난 1708년 윤3월 16일에 식년문과 갑과 제3인으로 급제하였다.

노봉의 관직 역임에 대하여 연도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노봉의 관직 역임 현황<sup>17)</sup>

연도	월일	관직	주요 업적 및 특이사항	비고
1696	10.21	進士 3等45人 入格		27세
1708	윤3.16	文科甲科 3人 及第		39세
1708	윤3.17	內瞻寺 直長(從7)		出榜 익일 임용

16) 『淮南子』에서 “나이 오십에 사십구 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 / 李彦迪, 『晦齋先生集』(목판본, 1631년), 권2, 「知非吟」에서 “내 나이 오십 세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사십오 년간의 잘못 이미 잘 알겠도다(今我行年未五十 已知四十五年非).” 등이 있다.

17) 이 부분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검토하여 김정의 『노봉문집』 부록의 「家狀」, 「墓誌銘」 등에서 잘못 기록된 것까지 바로잡았다.

연도	월일	관직	주요 업적 및 특이사항	비고
1708	6.2-6.22	承政院 假注書	글자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速記하는 능력이 탁월함	승정원에 서 모두가 칭찬함
1709	6월	西水庫 別提		
1709	7.26	司憲府 監察		
1710	4.29	鏡城判官		모친 70세, 辭讓疏, 5월 6일 下鄉
1712	1월任 4월赴	咸鏡道 都事	災傷을 잘 분석해서 신속 처리	관찰사李 善溥로부터 칭찬받음
1713		"		還鄉 10년 지냄 1720.9 모친상
1723	5월	兵曹正郎		吏曹判書 李台佐 擬望 除授
1723	8.2	春秋館 記注官 兼職 單望으로 추천		家狀 : 8월 春坊司書 擬望

연도	월일	관직	주요 업적 및 특이사항	비고
1723	10.13任 10.22 下直	沃川郡守	부임 이듬해 2차례 失火로, 民家 수백여 호와 官衙 수백여 칸 소실	1년 이내 신속 복구
1725	1.23	"	吏判 閔鎭遠, 청렴한 수령으로 천거	表裏 일습 下賜
1725	3.7任 4월 下直	江陵府使	金剛坪 백성 賦稅 탐감 / 흉년에 府民 救恤 / 퇴락한 旌閭 개축 / 七事堂 창건 / 城堞 중수 등을 행함	수령 중 最上 평가, 熟馬 1필 下賜, 善政碑세 워짐
1727	10.23	司憲府 掌令	사직소 올리고 사직	江陵任所 서 任命
1727	11.13		동지경연사 尹淳이 江界府使에 천거	*解由 등 논란, 左相 趙泰億반 대
1727	11.23	副護軍		
1728	3월		李麟佐亂, 풍기·영주·순흥 의병모집 계획함. 향리에서 副將으로 추대됨	安撫使 朴師洙가 장계를 올림

연도	월일	관직	주요 업적 및 특이사항	비고
1728	4.11	司諫院 正言	遞差를 바라는 啓를 올림, 不允(5월4일)/ 英祖 下問에 上奏(5.5-5.6) /삭탈 바라는 상소 올림, 不允(5.11)	*啓狀·上 疏文： 『承政院日 記』에 수록됨
1728	5월	揚武原從 功臣 一等		倡義 유공
1728	5.20任 6.30 下直	江界府使 (通政大夫 승진)	勸善懲惡 글 17조 작성, 府民에게 教諭 / 흥년에 구휼 / 山蔘을 人口數에 따라 捧納하던 것을 戶口數로 하는 蔘法 改正 / 四民 均等 賦役 시행 / 국방 대비 군량미, 장비 비축	재임 중 50餘事 條目 진술하여 감영에 보고, 오래도록 준수 하게 함
1728	12.10	"	평안도 箋文의 결봉에 謹上箋이라 써야할 것을 謹封으로 쓴 것 등	평안도 여러 관원과 推考 받게 됨
1729	11.25	"	松板 流下 禁法을 어겨서 罷黜됨 [卜定船(토산물 수송 배) 사건 연루]	義禁府 下獄 3월 保放 재 하옥
1730	12.3	副護軍		龍驤衛 소속

노봉 김정 의 목민관으로서의 삶(장인진)

연도	월일	관직	주요 업적 및 특이사항	비고
1731	2.27		영남어사 李滄이 노봉은 “의병을 먼저 주창했다고 거꾸로 말했고, 역적 김일경을 판서라 호칭했다” 고 탄핵함	
1732	1.20		持平 鄭熙普가 이흠의 탄핵 주장에 동조함	1월 26일 義禁府 下獄 傳教
1732	3.12		掌令 權相一이 이흠의 주장에 반박하고 伸救 상소를 올림	
1732	4.2		掌令 柳敬時가 이흠의 주장에 반박하고 伸救 상소를 올림	
1732	4.5		司諫 韓德厚가 이흠의 탄핵 주장에 동조함	
1732	4.10 4.12		持平 鄭熙普와 李滄(당시 副修撰)이 논박 당한데 대해, 삭탈을 바라는 상소를 올림	불운하거나 비답을 내리지 않고 도로 내줌
1732	5.20		노봉의 관직을 削奪함	
1732	윤5.14		노봉이 放免 은전[蒙放]을 받음	『清臺日記』 참조
1734	2.10	僉知中樞 府事		

연도	월일	관직	주요 업적 및 특이사항	비고
1735	1.13任 3월 下直	濟州牧使	官學 三泉書堂 건립, 學規 정함 / 警民編 간행 / 禾北浦 선창 수축 / 큰 흉년에 백성 救恤(1735-1736년) / 大同米 부세 경감 / 양로연 배품	興學碑, 奉公碑, 不忘碑 등이 세워짐
1737	8월	”	입기 만료 체직	社稷壇 배례
1737	9.3		제주 候風館에서 별세함	향년 68세

노봉의 관력을 살펴보면 내직에 임용되어 활동한 일은 많지 않다. 외직의 목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본다.

노봉은 문과 급제자로 出榜된 다음날인 1708년 윤3월 17일에 내섬시 直長이 되었다. 직장 벼슬로 첫 출사를 한 것이다.

출사를 하려면 영천에서 竹嶺을 넘어야 했다. 노봉이 죽령에서 감회를 읊은 시를 본다.

去北南鄉遠 북으로 올라가면 남쪽 고향 멀고  
來南北極遙 남으로 내려오면 북쪽 끝이 아득하네.  
君親無二致 임금과 부모 두 곳에 이를 수 없으니  
來去不辭勞 왔다 갔다 수고로움 사양하지 않으리.<sup>18)</sup>

시를 살펴보면 죽령을 지나면서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홀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1708년 직장 벼슬을 마치고 6월에는 승정원 假注書에 임명되었는데, 20여 일 간 재임할 때는 날씨가 매우 무덥고 사무가 번잡하였으나, 사초

18) 김정, 앞의 책, 권1, 「竹嶺道中」.



[승정원일기]를 쓰는데 글자 빠뜨림 없이 정확히 速記를 하였으므로,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다.

1713년 함경도 도사 직에서 물러난 후 10년간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 이 기간에 그의 저술을 살펴보아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 아마도 그는 남인이었으므로,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료가 막힌 것이라고 본다.

그러다가 소론이 정권을 잡고 있던 1723년 5월에 판서 李台佐의 천거로 병조정랑에 제수되었다.<sup>19)</sup> 10년 만에 내직으로 부임하게 되어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孱孫解記昔年事    잔약한 자손은 옛날의 일 기억하는데  
 今日趨朝感若何    오늘 조정에 가는 느낌 어떠하겠는가.  
 前後一官還一病    앞뒤로 한 관원이 되어 도리어 병이 되니  
 悲吟遺句鬢添皤    슬피 읊은 선조의 남긴 시구에 귀밑머리 더 희었네.<sup>20)</sup>

이 시는 그 증조부의 『학사선생문집』에 있는 「自笑」 시에 次韻하여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轉句(제3구)의 ‘前後一官’은 증조부 김응조가 지난 1625년 10월과 1628년 7월에 병조정랑이 되었는데, 이번에 자신도 병조정랑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結句의 ‘悲吟遺句’는 증조부의 시 전체에 질병으로 인한 비감이 흐르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sup>21)</sup>

19) 家狀에는 5월에 병조정랑 임명이라 했는데,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11월 14일(병인), 李光佐의 진언을 보면 “李台佐가 이조판서가 되어 병조정랑에 擬望하여 제수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태좌는 1723년 5월에 호조판서였고, 그 해 9월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진언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20) 金徹, 앞의 책, 권1, 「癸卯五月赴朝有感 敬次曾王父集中韻」.

21) 金應祖, 『鶴沙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자료), 권1, 「自笑(병조정랑의 소명을 받고 조정에 나아갈 때 의약을 찾음[以駢曹正郎赴朝 因就醫藥])」에 “병으로 상소하여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呈病休官是常理) 벼슬하며 몸조리한다면 도리가 어땠는가(因官調理如何) 가을바람에 말 채찍질하며 먼 길을 떠나니(秋風策馬登長路) 온갖 걱정이 마음을 괴롭혀서 두 귀밑머리 희었네(百慮攻中兩鬢皤).”라고 하였다.

노봉의 家狀을 보면 1723년 5월에 병조정랑에 제수되면서 춘추관 記注官에 겸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같은 해 8월 2일에 춘추관 겸직[기주관] 단일 후보[單付]로 추천되었다.<sup>22)</sup>

같은 해인 1723년 10월에 옥천군수가 되어 2년간 재임한 후 1725년 3월에 강릉부사가 되어 2년간 재임하였고, 1727년 사헌부 장령이 되어 서는 사직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1728년 3월에 이인좌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羅學川 등과 풍기·영주·순흥 3고을에서 의병을 모집 계획하였고, 향리에서 副將으로 추대되었으나, 임금이 거느리는 군대가 승전을 하여 해산하였다. 安撫使 朴師洙가 올린 장계의 내용 가운데 김정 관련 사항이 『감란록』에 실려 있다.<sup>23)</sup> 이 공로로 揚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그 해 5월에 노봉이 사간원 正言으로서 영조임금께 상소하여 이인좌란에 대하여 진언하였다.

영남 70고을은 儒賢의 은택이 끊이지 않고 공자와 맹자의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평소 군신 간의 分義에 밝고 충의의 절개가 크게 드러나 300년 동안 역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흉악한 무리가 그 속에서 짝터 우리의 옛 제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벼슬아치를 더럽혔습니다. 의병을 규합하여 적에게 나아가기 전에 임금의 군대가 먼저 이르러 흉악한 역적을 소탕하였으므로 못사람의 심정이 조금 시원해지고 싸움은 끝났지만 남은 분노가 아직도 뱃속에 버티고 있으니 영남의 심한 수치를 무슨 수로 씻겠습니까. ... 반드시 허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옥석을 분명히 구분해야만 스스로 편안한 마음이 들어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sup>24)</sup>

22) 『승정원일기』, 557책(탈초본 30책), 경종 3년(1723), 8월 2일 기유, 13/18 기사, “兼春秋單金倣”이라고 하였다.

노봉 家狀에는 이 해 8월에 春坊[世子侍講院] 司書로 추천[擬望]되었다고 했는데, 誤記라고 본다.

23) 宋寅明 朴師洙 奉教纂輯, 『勘亂錄』(顯宗實錄字本, 1729년), 권2, 60-61頁.

24) 『승정원일기』, 661책(탈초본 36책), 영조 4년(1728), 5월 11일 신유, 42/64 기사.

노봉은 앞서 5월 4일에도 이와 같은 논리로 啓를 올린 바 있다.

영남은 충절의 고장으로써 유풍이 남아 있었는데, 학문을 좋아하던 영남에서 이러한 역란이 일어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봉은 이 상소문에서 의식을 드러낸 것과 같이 오직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관직에서 활동하였다.

### 3. 현실인식과 목민관적 실천의지

노봉은 일찍부터 6가지 소원이 있었다. 좋은 책을 읽는 것, 좋은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아들이 태어나는 것, 산수를 좋아하는 것, 좋은 氣像을 갖는 것 등이었다.<sup>25)</sup> 이것이 6願인데, 현실 인식으로 잠재되어 經史를 많이 읽고, 교유에 신중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완수하고, 자녀를 의방으로 가르치며, 자연을 동경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6월에 견줄 3가지[當]를 생각해두었다. 3가지란 천천히 걸어가면서 수레 탄 것처럼 여기고, 늦게나마 배고플 때 먹으면서 고기 먹는 것처럼 여기며, 늦게 일어나면서 고귀하게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sup>26)</sup> 이 3가지는 제나라 은사 顏蠅의 고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sup>27)</sup>

노봉은 30년을 객지에 살다가 首丘初心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新屋上樑文], 지난날 다짐했던 6가지 소원과 3가지 견줄을 생각해 여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는 6월 3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6가지는 하늘

25) 金傲, 앞의 책, 권2, 「願當幽居記」

26) 위의 책. 같은 記文.

27) 3가지에 대해서는, 옛날 제나라 선왕(宣王)이 은사 안축(顏蠅)에게 “안 선생이 과인과 교유만 해 준다면 음식은 반드시 태뢰로 대접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수레를 타게 할 것이며, 처자식에게도 화려한 의복을 입게 해 드리겠소(顏先生與寡人游 食必太牢 出必乘車 妻子衣服麗都)”라고 제의하자, “선비는 초야에서 태어나 추천을 받으면 녹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준귀하고 현달함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선비의 몸과 정신이 불완전해집니다(士生乎鄙野 推薦則祿矣 非不得尊遂也 然而形神不全).”라고 하며, 거절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남긴 말이다.

에 달려 있기도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기도 하여 반드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깊이 그것을 원하지만, 3가지는 편안하고 한가로운 데서 自適을 취한 것으로, 오직 속세에서는 구하지 못하지만 자신[金倣]은 만나고 있다.”<sup>28)</sup>라고 하면서 ‘願當幽居’라는 기문을 지었고, 집 이름을 고쳐서 ‘六三窩’라고 했다.

노봉은 이미 6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좋은 기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자 했으므로 조정에 추천을 받으면 충성을 다하고, 벼슬에서 물러나서는 고향에서 은거하며 산수를 좋아하고 안빈낙도의 즐거움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 1) 애민과 목민 활동

노봉이 관인으로서의 활동상은 주로 함경도 도사와 4개 고을의 목민관을 수행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백성 걱정엔 눈물 넘쳐도 재주는 아무 소용 없는데 虛名이 대궐에 오를까 부끄럽네(民憂溢目才無用 慙愧虛名九闕登).<sup>29)</sup>와 같이 백성 사랑하고 걱정하는 구절이 곳곳에 보인다.

澎湃風聲萬馬騰	솟구치는 바람소리에 수 만 말(馬)이 치달리는데
木愁摧折屋憂崩	나무 꺾이고 지붕 무너질까 걱정이네.
坐思窮巷饑寒切	시골 백성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 생각하니
明燭中宵忘寢興	한 밤중에 촛불 밝혀 잠 못 이루네. <sup>30)</sup>

한 겨울 날씨에 큰 풍설을 만나게 되어 재해가 예상되니, 수령으로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추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다.

노봉은 하늘이 부여한 성품은 착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여 맹자의 性

28) 金倣, 앞의 책, 권2, 같은 記文.

29) 위의 책, 권1, 「贈權鉉叟(重泰)」.

30) 위의 책, 권1, 「校宮以修理事移安已久時值大風雪」.

善說을 따랐다. 요·순은 본성을 극진히 한 것이고 衆人은 본성을 어지럽게 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중인이라 할 지라도 敎導와 開發을 통하여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성품에서 어둡고 막힌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개발하고, 인륜을 밝히는 것으로써 교도하면 된다고 했다.

고을에는 옛날부터 『警民編』이 있어서 간행한 책을 모아보았더니 너무 번잡하고 사이사이에 언해[한글 해설]가 붙어있어서 저절로 큰 秩을 이루었다. 비록 유식한 선비들이 본다고 할지라도 읽은 지 반도 채 못 되어 어지럽고 싫증이 나서 책을 덮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문자[漢文]를 알지 못하고 언문[한글]을 대강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한 어찌 풀이해서 보겠는가. 이에 간행본 중에서 오직 思齋 김선생[金正國]이 지은 요긴한 節目을 刊印하였는데, 그 언문 해설을 삭제하지 않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하였으며, 또 언해를 끄집어내어 따로 한 책으로 베껴서 마을의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부녀자들로 하여금 또 한 쉽게 읽고 쉽게 알도록 하였다.<sup>31)</sup>

제주목사로 부임한 초기에 그는 도민을 교화하고자 김정국이 지은 『경민편』을 간행하여 배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읽고 쉽게 알도록 하였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다. 흉년에는 자제들조차도 사나운 일이 많아진다(『맹자』, 凶歲 子弟多暴)라고 했듯이 인심은 흉흉하게 되므로, 아무리 좋은 언해본을 간행하여 배포한다고 해도 외워 익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양식을 방출하는 길도 이미 열어놓았으니 무릇 우리 백성들은 맹자의 ‘사나움이 많아진다[多暴之訓]’라는 훈계를 복습하고, 한 편의 警民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만 입으로 읽을 뿐만이 아니라

31) 위의 책, 권2, 「教諭一島民人文」, “州舊有警民編 刊本袁集太煩間附諺解 自成巨秩 雖使有識士子見之 獨未半而昏倦 掩卷者有之 況不知文字而粗解諺書者 又安能尋繹而看之哉 茲於刊本中 獨印思齋金先生所撰 要緊節目 而不刪其諺解 以使其通解 又拈出諺解而別贈一本 使閭巷愚夫愚婦 亦能易讀而易知.”

또한 마음에 간직할 것이며, 다만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몸으로 실행한다면 어찌 크게 변하여 한결같이 새롭게 되지 않겠는가.<sup>32)</sup>

흥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아서 그는 식량을 방출하여 수습하고서는 도민들에게 다시 警民에 대한 뜻을 익히고 마음에 간직하며 실행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농사에 절기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서 흥년에 대비토록 가르쳐 일깨웠다.

한편으로는 그는 문교를 중시하여 제주목의 官學인 三泉書堂을 건립하여 향교나 서원에서 공부할 수 없는 일반 평민들을 모아서 직접 강을 하며 교화하였다.

聖代右文化	성대(聖代)의 문화 숭상하면
凡民皆可興	못 백성 모두 일으킬 수 있네.
英才如得教	영재들 가르침 얻게 하면
其樂殆難勝	그 즐거움 이길 수 없네. <sup>33)</sup>

이 시는 삼천서당을 건립하고 지은 것이다. 그는 맹자가 말한 三樂의 영재 교육<sup>34)</sup>과 애민을 실천하고자 한 의지가 두드러진다.

다산 정약용은 바람직한 공직자상으로 목민관의 청렴을 최우선으로 들었다. “청렴이란 목민관의 본무요, 만 가지 착함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뿌리이다.”라고 하여 도덕성을 강조하였으며, 목민관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실무능력에 밝은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35)</sup> 수령은

32) 위의 책, 권2, 「重爲告諭文」, “歲律又新矣 驪路已開矣 凡我民人 深懼亞聖多暴之誠 溫習一編警民之語 不徒讀之於口 而又存之於心 不徒存之於心 而又行之於身 則豈不丕變而一新乎.”

33) 위의 책, 권1, 「樂育齋」.

34) 『孟子』 盡心上에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三樂]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 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라고 하였다.

마땅히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노봉의 목민관 임명과 관련하여 당시 사람의 평어를 살펴보면 그가 목민관으로서 자질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727년 11월에 동지경연사 尹淳이 임금께 아뢰기를, 노봉에 대해 解由[사무 인계 후 호조에 보고]에 구애받지 말고 江界府使에 임명하도록 천거하였다. 윤순이 영조께 진언한 글을 본다.

며칠 전에 평안감사가 올린 장계에 ‘인삼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단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강계부사를 아주 잘 가려 뽑아 보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 강계 같은 고을에 합당한 사람으로는 몸가짐을 맑고 엄정하게 하며 사무를 밝게 아는 사람으로 金倣에 비견할 만한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擬望[물망 있는 3명 천거]하려고 하였으나, 解由[사무 인계 후 호조에 보고]에 구애되어 규례에 따라 의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아뢰니다.<sup>35)</sup>

이에 대하여 영조는 “인재를 가려 뽑는 것이 급선무이다. 김정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아뢴 말을 들으니 쓸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해유에 구애받지 말고 갖추어 의망하라.” 하였다. 이에 대해 삼공의 찬반 논란이 있었다.

영의정 李光佐가 아뢴 내용은 이러하다.

김정은 명신의 자손으로 영남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선조 조에 여섯 형제가 급제하였는데, 그중에 어떤 이는 대사헌이 되고 어떤 이는 대사간이 되었으며, 모두 중요한 벼슬을 거쳤습니다. 김정은 대사헌[김응조]의 증손으로 사람됨이 바르고 청렴하여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을 섬기며 문을 닫고 독서하여 구차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 沃川은 신의 선영이 있는 고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치적을 자세히 들었는데 고

35) 김인규, 「다산 정약용의 공직자상과 공직윤리」, 『동양문화연구』 20, 동양문화연구원, 2015, 82-83쪽.

36) 『승정원일기』, 649책(탈초본 35책), 영조 3년(1727), 11월 13일 을축, 37/77 기사.

을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국휼 때의 처신은 상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렴하기는 또 남보다 뛰어나 신은 항상 가상히 여기고 탄복하였습니다.<sup>37)</sup>

우의정 沈壽賢이 아뢴 내용 또한 영의정과 비슷한 취지이다.

김정의 이름은 신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 均田使로 영남에 갔을 때 榮川郡守가 명망 있는 선비 김정을 都監官으로 삼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천에 도착해 그를 불러 이야기해 보니 사람됨이 강직하고 자못 사리를 알았습니다. 문서를 지을 적에는 사방에 울타리를 둘러 외부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밖의 처사도 매우 꼼꼼하였습니다.<sup>38)</sup>

그러나 좌의정 趙泰億은 노봉을 일컬어 재주가 부족하다고 하며 “한 번 사람이 부족하다고 나라의 법을 함부로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豈宜因一乏人 輕撓邦憲乎)?”하고 반대하여 이 일을 중지하였다.

인용문에서 윤순, 이광좌, 심수현 등이 노봉을 강계부사로 천거하는 당위성을 역설하며 옥천군수로서 선정을 베푼 사실을 들고 있다. 이로 보면 노봉이 목민관으로서 지녀야 할 청렴성과 엄정성, 사무처리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12년 4월에 함경도 都事에 부임하였다. 함경도의 도사와 評事는 도 내에서 재앙이 생기면 남·북도로 분장해서 처리하는 것이 定例였는데, 각 州郡에서 災傷의 문서가 계속 오게 되므로 조사하여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재앙을 처리함에 있어서 北道の 평사 洪致中은 7일 만에 일을 마감했음에도 스스로 민첩함을 자랑하였는데, 南道の 도사인 노봉은 실상을 분석해서 처리하기를 흐르는 물처럼 하여 3일 만에 완수하니, 관찰사 李善溥로부터 업무 수행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이처럼 사안을 정확히 판단하고 실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37) 위의 책, 영조 3년(1727), 11월 14일 병인, 18/18 기사.

38) 위의 책, 같은 먼.



1723년 10월에 옥천군수에 제수되었다. 부임한 이듬해 봄에 두 번이나 발생한 失火로 인하여 민가 600여 호와 관아 수백여 칸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복구하였다. 당시 유배지에서 돌아오던 이조판서 閔鎭遠이 沿路에서 들었던 선정 사실을 영조 임금께 진언하였다.

(신이) 들은 내용입니다. 옥천군수 김정, 고산현감 이도현이 자기 자신을 단속하여 매우 청렴하고 검소하다고 이웃 고을의 사람들도 모두 칭송한다고 합니다. 고을의 수령에게 따로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sup>39)</sup>

민진원의 진언에 따라 영조가 노봉에게 表裏[옷의 겉감과 안감] 1습을 하사하였다.

1725년 3월에 강릉부사가 되었다. 영월에서 묵으면서 지은 시를 본다.<sup>40)</sup>

王孫芳草綠芊芊    왕손의 향기로운 풀 푸른빛이 우거졌는데  
 夜月空山哭杜鵑    달밤의 공산에는 두견새만 울고 있네.  
 事往百年難可問    백년 지나간 일이라 묻기 어려운데  
 至今行路尚潸然    지금도 지나는 사람들 아직도 눈물 흐르네.<sup>41)</sup>

단종의 슬픈 유적이 있는 영월에서 잠을 자게 되니 감회가 애잔하고 시적 분위기가 처량하다. 莊陵을 포함한 유적지를 지나는 행인들이 단종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음을 보고서는 노봉 자신도 그들과 동화되기가 충분하였다.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강릉부사 재임 중에 치적을 살펴보면 고을에 왕실 소유의 金剛坪을 유민들이 개간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賦稅의 탕감을

39) 『영조실록』, 권3, 1년(1725), 1월 23일 입술 기사.

40) 이 시는 노봉이 부임할 때 지은 것인지 재임 후 순행할 때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다.

41) 金傲, 앞의 책, 권1, 「宿寧越」.

조정에 건의하여 관철시켰다. 큰 흉년이 들어서는 자체로 비축해둔 양곡을 사용하여 救恤하였고, 퇴락한 충·효·열의 旌閭를 개축하였으며, 七事堂을 창건하여 7가지 조목<sup>42)</sup>을 게시하였고, 城堞을 중수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강원감사 柳復明이 그의 치적을 最[제일 잘하는 등급]로 평가하여 조정에 보고하니, 말[馬] 1필이 하사되었다. 강릉에 선정비가 세워졌다.<sup>43)</sup>

노봉이 처음 강계부사로 추천되고 6개월이 지난 1728년 5월에 강계부사에 제수되어 부임하였다. 재임 중에 치적을 살펴보면 권선징악의 글 17조를 작성하여 부민에게 教諭하였고, 흉년이 들어서는 구휼하였으며, 山蓼을 인구수에 따라 捧納하던 것을 호구수로 하는 蓼法을 개정하여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四民에게 균등하게 賦役을 시행하였으며, 강계가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방을 대비하고 군량미와 장비를 비축하였다. 이러한 일을 포함하여 50여 건을 조목으로 기록하여 오래도록 준수하게 하였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良役に 대한 의논을 수렴하고 있었는데<sup>44)</sup> 노봉도 「良役收議」 1편을 지어 올렸다.

수령이 관할 고을을 순시하는 것은 愛民에 기반을 둔 목민 활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노봉은 부임한 그 해 가을에 부내를 순시하다가 고을 사람 田禹圭의 집을 방문하여 鐵燈檠[쇠 등잔대]을 빌려 왔는데 이 물건에는 내력이 있었다.

가정 정미년(1547) 윤9월에 회재 이선생[이언적]이 江州[강계]로

42) 수령칠사(守令七事)란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할 것, 호구를 증가시킬 것, 학교를 일으켜 세울 것, 군정을 닦을 것, 부역을 고르게 할 것, 송사를 간단하게 할 것, 간소한 일을 없앨 것 등 수령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7가지 임무를 말한다. [홍동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독해법과 공직자의 청렴」, 『다산과현대』 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285쪽.]

43) 『江陵府先生案』(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A2196-1), 金倣條, “乙巳四月來作七事堂 移別堂, 作水閣 作鍾 而不費民力 丁未十一月 以掌令除去 善政立碑.”라 하였다.

44) 『승정원일기』를 보면 노봉이 강계부사로 있던 1728년 7월 13일, 7월 28일 조에서 양역(良役)의 변동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 수렴이 활발하였다.

유배를 와서 7년을 넘긴 계축년(1553) 11월에 역책(易箠)하였다. 田生의 고조 興祿이 바로 그의 문인이었다. 당시의 쇠 등잔대가 대대로 지켜 와서 없어지지 않았다. 무신년(1728) 가을에 이 고을에 도착하여 빌려왔다.<sup>45)</sup>

이와 같은 짧은 서문[小序]을 달고서는 시 1수를 지었다.

丁戊己庚辛壬癸 정미부터 계축까지 7년  
回頭嘉靖已三周 돌아보니 가정연호(嘉靖年號) 이미 3주년  
當時鐵檠今猶在 당시의 쇠 등잔대 지금도 역시 있으니  
夜夜挑燈起感悠 매일 밤 등을 돋우니 아득한 감회 일어나네.

전우규의 고조부 田興祿이 사용하던 쇠 등잔대가 그 집에서 4대째 전해지고 있었다. 유래를 듣고 보니 전홍록은 회재 이언적이 강계에서 귀양살이 할 때 가르쳤던 문인이었다. 노봉은 이 사실을 詩語로 기록하였다. 결국에 “매일 밤 등을 돋우니 아득한 감회 일어나네,”라고 한 것은 회재 이언적을 존모한 구절이라고 본다.

노봉은 여러 가지로 선정을 했음에도 조정에 올리는 箋文의 곁봉에 ‘謹上箋’이라 써야할 것을 ‘謹封’으로 쓴 것 등으로 推考를 받기도 했으며,<sup>46)</sup> 1729년 11월에는 강계부의 船隻 次知監官[담당 감관]이 금법을 무릅쓰고 송판을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 보낸 사건에 연루되어 파출되었다.<sup>47)</sup>

1731년 2월에는 경상도 암행어사 李滄이 노봉을 일컬어, 이인좌난 때 의병을 먼저 주창했다고 거꾸로 말했고, 1724년 영조 즉위 때 참형을 당한 金一鏡<sup>48)</sup>을 당시 판서라고 호칭했다고 하며 탄핵하였다. 이듬은 노론

45) 金倣, 앞의 책, 권1, 「奉還田生禹圭家鐵燈檠」. “嘉靖丁未閏九月 晦齋李先生 謫居江州 越七年癸丑十一月 易箠 田生之高祖興祿 乃其文人也 當時鐵檠 世守而不失 戊申秋到此府借來.”

46) 『승정원일기』, 675책(탈초본 37책), 영조 4년(1728), 12월 10일 병술, 9/29 기사.

47) 위의 책, 697책(탈초본 38책), 영조 5년(1729), 11월 25일 을미, 16/27 기사.

48) 김일경(1662-1724)은 소론의 거두이다. 1721년(경종 1)-1722년 왕통 문제와

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榮川 지역을 암행하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여 탄핵한 것이다.<sup>49)</sup> 이흡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은 정희보, 한덕후 등이었다. 그러나 이 탄핵에 반대하여 노봉을 구하고자 伸救疏를 올린 사람은 영남의 남인이었던 權相一,<sup>50)</sup> 柳敬時<sup>51)</sup> 등인데, 이들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노봉은 이듬해 윤5월에 방면되었다. 혐의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1735년 1월에 제주목사가 되었다. 재임 중에 치적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함과 같이 제주목의 官學인 삼천서당을 건립하고 學規를 정하여 일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배우게 하였고, 『경민편』을 간행하고 訓民

관련하여 신임사회를 일으켜서 노론을 숙청한 일로 참형을 당하였다. 1908년에 대사헌으로 복작되었다.

李晩燾, 『響山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자료), 권11, 「Y溪金公(一鏡)復爵焚黃祝文」에 의하면 “면전에서 직간하다가 절의 지켜 의리에 죽었네(犯顔直諫 伏節死義). 선대의 유학자가 말씀하되 이치는 하나라고 하였네(先儒有言 其理一致).”로 시작하여 총 576자나 되는 장문의 축문을 지어서 김일경을 새롭게 평가하였다.

- 49) 이흡이 경상도에서 암행할 당시 영천군수는 안상휘(安相徽)이다. 그가 노론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소 사건이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안상휘(1690-1757)는 본관이 죽산으로, 동지돈녕부사 안구(安綏)의 아들이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그는 1729년 윤7월부터 1731년 10월까지 榮川郡守로 재임하였다. 안구의 묘갈명은 안상휘의 청탁에 따라 도암 이재(李穡)가 찬하였다.
- 50) 권상일의 상소문에 의하면 “김정이 역적 김일경의 벼슬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중간에서 서로 좋게 여기지 않는 자가 억지로 끌어다 말을 꾸며서 수의(繡衣)의 귀에 들린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의 평생 언행은 창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은 논할 것도 없고, 세 번 극읍(劇邑)[사무가 많은 고을]을 맡아 모두 특이한 치적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악명(惡名)을 입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영조실록』, 권31, 8년(1732), 3월 12일(기사).]
- 51) 류경시의 상소문에 의하면 “지금 그가 무함을 받은 일은 두 가지 일인데, 이른바 공을 빼앗아 자급이 올랐다는 말은 사대부가 크게 수치스럽게 여길 일입니다. 변란을 당해 창의하는 것은 신하의 본래 도리이니, 공적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오히려 자처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어찌 빼앗아 취할 수 있겠습니까. … 역적 김일경의 작호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더욱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법에 의해 죽음을 당한 역적의 작호를 부르는 것은 풍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집안에서 사사로이 이야기 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에서 짝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한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의를 외치는 날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승정원일기』, 741책(탈초본 41책), 영조 8년(1732), 4월 2일 기축, 25/30 기사.]

歌를 지어서 島民을 교유하였으며, 禾北浦의 축항공사를 수행할 때 스스로 돌을 지고 나르며 일을 추진하였다.

재임 중에는 섬사람이 배 사고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이 발생하였다. 그는 백성을 매우 사랑하였기에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위하여 제문을 지었다.

嗟爾冤魂 尙何爲說	아! 원통한 혼이여, 더구나 무슨 말을 하겠는가.
官雖不殺 其死等殺	관이 비록 죽이지 않았으나 그 죽음은 죽인 것과 같구나.
散木爲舟 初不能察	쓸모없는 나무로 배 만든 것을 처음부터 살피지 못하였고
榦之公事 亦異私出	공사를 맡은 것이니 또한 사사로이 나간 것과는 다르네.
三纜同繫 何以先發	세 가닥 닻줄을 함께 묶었는데 어떻게 먼저 떠났는가.
大洋無邊 何處覆沒	큰 바다는 끝없는데 어느 곳에서 배가 뒤집혀 가라앉았는가.
孤寡搥胸 至冤莫洩	고아와 과부가 가슴을 치니 지극히 원통함을 풀 수가 없네.
風乎鬼乎 天愁海黑	바람이여! 귀신이여! 하늘은 수심을 띄고 바다는 시커먼데
陸人並命 又不可識	육지 사람들 나란히 목숨 바침을 또한 알 수가 없네.
中心惻愴 代酌一酌	마음속 서글퍼하며 한 잔 술을 대신하여 올리도다. <sup>52)</sup>

배 만드는 일부터 출항에 이르기까지 관아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사고를 당한 가족의 슬픔을 공감하고 원통하게 죽은 자에게 한 잔 술로 위로하고 있으니 정경이 애잔하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부임한 해로부터 2년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救恤하였고, 大同米의 부세를 경감하였으며, 양로연을 베풀고 100세 이상의 노인을 포상하였다. 송나라 范仲淹이 말한 先憂後樂<sup>53)</sup>을 실천한 것이다. 이러한 공로로 제주목 관내의 삼천서당 경내에 ‘蘆峯金先生興學碑’, 화북 포구에 ‘牧使金公倣奉公碑’, 외도동 월대 포구에 ‘使相金公倣清德恤民萬世不忘碑’ 등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sup>54)</sup>

52) 金倣, 앞의 책, 권3, 「酌淹死人文」.

53)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의 「岳陽樓記」에 나오는 “천하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뒤에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는 말을 4자로 요약한 것이다.

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8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 자료집」, 『21세기

1737년에 제주목사로서 임기를 마치고, 귀향에 앞서 사직단에 고유하였는데, 그 글에 “명을 받아 수령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음덕을 입다가, 임기가 차서 벼슬을 내놓고 돌아가게 되어, 경건히 사직단에 아뢰니다(承命守土 百賴陰庥 秩滿解歸 敬辭靈壇).”<sup>55)</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해 9월 3일에 제주목 候風館에서 귀향을 대비하던 중에 풍병을 만나서 별세하였다.<sup>56)</sup>

노봉이 목민관으로서 보여준 업적은 한 마디로 민본을 바탕으로 한 애민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 2) 산수 인식과 의취

송나라 주희는 “산을 보고 물을 즐기는 것 역시 방심이다(看山玩水 亦是放心).”라 하였고, 공자는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仁者樂山 知者樂水).”라 하였다.<sup>57)</sup> 산수를 찾는 것은 학문을 연마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다.

퇴계 이황은 청량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清涼諸詠』 55편의 시와 주세붕이 지은 『清涼山錄』에 대하여 스스로 『清涼山錄跋』을 지은 바 있다. 이후로 퇴계학맥을 이은 학자들이 청량산을 포함하여 영남의 명산에 대한 遊記를 많이 지어서 20여 편이나 확인된다.<sup>58)</sup>

『장자』, 『逍遙遊』에 許由가 “이름이라는 것은 실질(실상)의 손님이니,

제주리더 노봉을 통해 배우다』(2014. 4. 8), 23-25쪽.

55) 金倣, 앞의 책, 권3, 「拜辭社稷壇文」.

56) 『승정원일기』, 857책(탈초본 47책), 영조 13년(1737), 9월 20일 기사에 의하면, 備邊司에서 제주목사 시신을 운반할 擔軍을 경유하는 각도에 분부하여 지급 하도록 啓를 올려서 允許를 받았다.

57) 權好文, 『松巖先生續集』(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c13648-07-31), 권6, 『城山記』에 “朱子曰 看山玩水 亦是放心 孔子曰 仁者樂山 智者樂水”라 하고 이어서 “山水는 仁·智者가 마땅히 즐겨하지만 방심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어떻게 능히 그렇게 하겠는가(山水則仁智者之所宜樂 而不至於放心者 何以能然也)”라 하였다.

58) 장인진,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297-299쪽.

내가 장차 손님이 되라는 것입니까(名者實之賓也, 吾將爲賓乎).”라 하였다. 실질이 있으면 이름이 따른다는 것이다.

노봉은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는 오직 금강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고 칭하였다. 1712년에 금강산을 거의 몇 달 유람하고서는 “기괴하고 영묘하며 특이한 모습은 눈 붙일 틈이 없고, 입으로 형언할 수 없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가볍게 나부끼게 하여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오르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sup>59)</sup>라고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경에 있던 曦陽山은 당시 지역에서도 주목하지 않은 곳이었다. 1688년에 농암 김창협이 ‘華陽의 여러 명승에 대한 기문’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는 회양산에 대한 글이 있다.

문경 회양산은 봉우리가 많지 않은데, 主峯은 하나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바위 빛이 삼각산의 仁壽峯, 露積峯 두 봉우리와 똑같아서 부서 지거나 흩어 달린 기운이 전혀 없다. 다만 형체가 그리 깎아지른 듯 예리하지 않은데, 이 때문에 기이한 자태가 부족하다.<sup>60)</sup>

농암 김창협은 주봉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삼각산의 인수봉과 노적봉의 바위 빛깔과 비슷하여 바위의 빛깔은 좋으나, 기이한 자태가 부족하다는 평을 하였다.

그런데 노봉은 금강산을 두루 유람하고 7년이 지난 1719년에 회양산을 유람한 뒤 호평의 遊記를 남겼다.

층층 절벽 산마루에는 떠다니는 얼음처럼 하얗게 쌓여서 수려함을 닮으며 하늘에 닿았고, 한 점 티끌조차 없는 속세의 기운은 황홀하여 중향성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으니, 거령이 쪼개고 과보가 옮겨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비 온 뒤의 나는 물결이 봉우리 덮고 바위에 넘쳐 흐르는데 많아서 셀 수 없으니, 온갖 폭포가 흐름을 닮는 것인가. 바

59) 金倣, 앞의 책, 권2, 「遊曦陽說」, “其瑰詭靈異之態 目不暇接 口不能形 令人飄飄然 有羽化登仙之想.”

60) 金昌協, 『農巖先生集』(한국문집총간 자료), 권23, 「華陽諸勝記」.

위에 걸친 긴 다리는 깎아지른 절벽의 허공으로 솟았는데 높아서 오를 수 없으니, 무지개가 하늘의 조화를 빼앗음인가. 기원[절]과 큰 사찰이 웅위하게 지어졌는데 불상 천 軀에 승도가 일 만이니, 바깥 산의 楡店寺인가. 백운의 높다란 누대가 정남쪽에 터 잡았는데 천 가지 상쾌한 경치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안 산의 歇惺樓인가. 기암괴석이 걸터앉았다가도 서 있고, 굽어보다가도 올려다보며, 평평하여 솟돌 같은가 하면, 뽀쪽하여 봉우리 같구나. 靈源의 다른 물줄기는 그 사이에서 쿵쿵 흐르는데, 광광거림이 우레 치는 듯 하고, 쨍쨍거림이 옥 울리는 듯하구나. 둥근 곳을 만나면 둥글게 되고, 모난 곳을 만나면 모나게 되며, 절구에 물이 모이면 깊어지고, 흩어져 넓게 흐르면 얕아진다. 그것이 간혹 세차게 흐를 때는 구멍에서 뿜어져서 아름다운 구슬 같이 흩어지니, 眞珠潭과 비슷하고, 큰 돌이 언덕에 떠 있어서 아래가 마치 석실과 같으니, 普德窟과 비슷하다.<sup>61)</sup>

巨靈은 화산을 갈랐다는 황하의 신이고, 夸父는 걸음이 빨랐다는 고대 신화 속의 인물이다. 중향성, 유점사, 혈성루, 진주담, 보덕굴 등은 금강산과 관련이 있는 명칭이다. 노봉은 알려지지 않은 회양산을 금강산 못지않은 경치 좋은 산이라고 인식하고, 금강산에 비겨서 글을 지었는데 의문법의 형식으로 강조한 것이 많다. 형언한 글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노봉은 금강산을 유람하고서는 유기를 짓지 않았는데, 회양산에 대해서는 이처럼 느낌이 있어서 글을 남긴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금강산에 들어갈 때는 마음과 눈이 놀라지 않았는데, 이번엔 내가 회양산을 보니 혼이 도리어 어지럽게 되고 뉘도 도리어 동요하니, 대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한 것을 보지 못한 마음이 잠재해 있다가, 회양산의 뛰어난 경관이 갑자기 눈에 달려와서 만나게 됨을

61) 金倣, 앞의 책, 권2, 「遊曦陽說」, “層崖絕巘 積白浮冰 競秀而摩天 無一點塵 埃氣 愜然 若衆香城望高峯 得非巨靈劈而夸父移邪 經雨飛濤 被峯漫巖 多不可數 萬瀑之爭流耶 駕石長橋 截壑跨空 高不可攀 飛虹之奪造化耶 祇園鉅刹 結構雄偉 佛像千軀 僧徒萬指 外山之楡店耶 白雲高臺 占地亭午 千般爽槩一覽盡得 內山之歇惺耶 奇巖怪石 或蹲或立 或俯或仰 或平如砥 或尖如峯 靈源異派 汨瀾其間 轟轟如吼雷 琤琤如鳴玉 遇規而圓 遇矩而方 匯白則深 散衍則淺 厥或驚流噴竇散若瓊玉 潭稱眞珠者似之 大石浮峙 下若石室 窟號普德者似之.”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산에 금강이라는 실질이 있으나 금강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은 어찌 된 것인가. 실질은 산이 있는데, 돌아보고 이름 짓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어떻게 산에 주어졌는지는 여기서 거둬서 느끼는 바가 있다.<sup>62)</sup>

그는 다시 “세상에 이름이 있으면서 실질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름이 없으면서 실질이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되는가(天下有名而有實者 有幾 無名而有實者 亦有幾).”라고 되묻는다. 이름보다 실질을 중시하였고, 외관보다는 내실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山水之樂을 추구했다고 본다.

노봉은 살고 있는 곳 주위에 方塘[네모진 못]을 만들고 시를 읊으며<sup>63)</sup> 산수를 즐겼다. 그는 방당을 보면서 「又次朱晦庵韻」 1수를 지었다. 이 시는 朱熹의 「觀書有感」<sup>64)</sup>을 차운한 것이다. 방당을 만든다는 것은 주희의 의식을 수용한 것으로, 주희를 숭모한다는 의미이다.

止水方塘明鏡開 方塘의 그친 물결이 밝은 거울처럼 트였는데  
 朝昏吟弄獨徘徊 아침저녁으로 시 읊으며 홀로 배회하네.  
 活源不息清無滓 근원의 생수가 쉽 없이 흘러도 티 없이 맑은데  
 觀物收將入我來 觀物 거두어들이고자 내가 왔네.<sup>65)</sup>

62) 위의 「遊曦陽說」, “向余之入金剛也 心不爲之驚 目不爲之駭 今余之見曦陽也 魂反爲之悖 魄反爲之動 蓋以金剛艷賞 已宿於未見之心 曦陽奇觀 猝得於驟 遇之目也 然則之山也 有金剛之實 而無金剛之名 何哉 實者山之有 而顯名之者人也 名何與於山 余於是重有感焉.”

63) 위의 책, 권1, 「方塘」 시는 “물레방아 쪼으며 내려오니 못 수면에는 파문이 고요히 이네. 물결이 작게 인다고 말하지 마라 청명한 그만이 있네(水槽春春下 池面縠紋舒 莫道波微動 清明爲有渠).”라 하였다.

64) 朱熹, 『朱子大全』(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2古朝46-나9), 권2, 「觀書有感(二首)」. 첫째 시를 보면 “만 이랑 방당(方塘, 네모진 못)이 거울처럼 트였는데, 하늘 빛 구름 그림자 그 안에서 배회하네. 물노니 어이하여 것처럼 해맑을까, 원두(源頭)에서 활수(活水)가 오기 때문이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 하였다. 이 시의 韻字는 주희, 「武夷歌」의 九曲詩 가운데 제8곡 시의 운자와 동일하다.

65) 金傲, 앞의 책, 권1, 「又次朱晦庵韻」.

起句는 明鏡止水를 뜻하는데 즉 마음가짐과 행동이 고결한 것을 의미하고, 결구의 관물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잘 살펴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관물을 철학적으로 구체화 시킨다면 송나라 邵雍의 관물 사상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한 관물 사상을 요약하면 세계와 인간 그리고 역사의 근원 및 그 생성과 변화의 법칙을 밝히기 위한 철학적 인식방법이기도 하다.<sup>66)</sup>

그런데 주희가 붙인 시제가 觀書有感이다. 관서는 책을 읽는 일이지만 이 시의 의미는 다르게 이해된다. 조선시대에서는 주희의 이 시에 대하여 내용과 형식을 수용하거나 차운한 것이 많았다. 한 예로 퇴계 이황의 시<sup>67)</sup>를 포함하여 李德弘, 都聖俞, 金昌協, 權相一, 李象靖, 柳道源, 正祖, 李震相, 李晚燾 등의 시문을 들 수 있는데, 퇴계학맥을 이은 영남 출신이 많다. 노봉 역시 퇴계학맥을 이은 학자이다. 이 차운시에서 그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관서·관물하고, 나아가 주희의 格物致知하는 자세를 배우고자 한 것이라고 본다. 주희의 격물치지는 삶의 현실에서, 생활세계에서,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sup>68)</sup> 따라서 노봉은 산수를 즐기면서 주자학적 학습태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노봉은 오륙 계곡을 중심으로 「梧溪九曲」이라는 구곡 시 10수를 지었다.

구곡 시는 송나라 주희(1130-1200)의 영향이 크다. 주희는 중국 북건성 송안현 남쪽의 武夷山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고 제자를 양성하며 산수의 아름다움을 한시로 표현하였다. 그는 1184년에 무이산에 구곡을 설정하여 배를 타고 구곡을 따라 유람한 후, 曲마다 시를 읊은 9수와 序

66) 최형록, 2009.8. 「邵雍의 觀物사상과 자연과의 소통 詩學 연구」, 『중국학』 33, 대한중국학회, 2009, 250쪽.

67) 權斗經 編, 『退溪先生言行錄』(목판본, 도산서원), 권1, 「學問」, ‘先生少時 偶遊燕谷’에서 “고운 풀 이슬에 젖어 물가를 돌렸는데, 작은 못 맑고 깨끗하여 티끌도 없네. 구름 날고 새 지나는 건 본래 있는 일인데, 때때로 물결 치는 제비가 두렵네(露草天天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에서 “金誠一亦記此詩 曰與朱子觀書有感之詩同其意云云.”이라 하였다.

68) 김태완, 「朱熹 格物致知論의 사상사적 意義」, 『동양철학연구』 95, 동양철학연구회, 2018, 140쪽.

詩 1수 등 10수의 「武夷權歌」[武夷九曲歌]를 지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선비들은 특히 주자학을 신봉하였으므로 자연히 주자학적 세계관이 확립되어 구곡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고, 은거하며 생활하는 곳에는 그 나름대로 구곡을 설정하여 창작 또는 次韻詩를 남기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구곡의 경영 사실을 살펴보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朴河澗의 雲門九曲, 이황의 陶山九曲, 이이의 高山九曲, 정구의 武屹九曲, 李重慶의 梧臺九曲, 송시열의 華陽九曲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주희의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시를 살펴보면 퇴계 이황의 차운시(69)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67편이 확인된다.<sup>70)</sup> 한글 구곡가도 이이의 「고산구곡가」, 이중경의 「오대어부가 구곡」<sup>71)</sup>을 포함하여 여러 편 지어졌다.

우선 주희가 설정한 구곡을 武夷九曲圖 중심으로 살펴보면 1곡부터 9곡까지를 升眞洞, 玉女峯, 仙機巖, 金鷄巖, 鐵笛亭(武夷精舍), 仙掌峯, 石唐寺, 鼓樓巖, 新村市 등으로 나타낸다.

노봉이 지은 「오계구곡」은 주희의 「무이도가」의 차운시이다.<sup>72)</sup> 그는 구곡을 愚山, 古渡, 振衣, 豫巖, 松亭, 汾浦, 下潭, 中潭, 上潭 등으로 설정하고,<sup>73)</sup> 오륙리의 일대를 그 옛날 주희가 살았던 무이산에 견준 것이다. 이렇듯 그는 주희를 매우 숭모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69) 李滉, 『退溪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자료), 권1, 34頁, 「閒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

70) 김영봉, 「조선조 무이도가(武夷權歌)에 대한 평가와 차운시(次韻詩)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62, 열상고전연구회, 2018, 152-155쪽.

71) 張仁鎭, 「새로 발굴된 李重慶의 梧臺漁父歌」, 『圖書館學』 10, 한국도서관학회, 1983, 149-188쪽.

72) 金億의 「오계구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는 않았다.

73) 풍산김씨오륙문중 편, 『전통문화체험마을 梧籠』, 2006, 53쪽에 의하면 오륙마을을 중심으로 「오계구곡 추정도」가 실려 있다.

주희, 「무이도가」<sup>74)</sup>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위에는 仙靈이 있고  
 山下寒流曲曲清 산 아랫 찬 시내는 굽이굽이 맑네  
 欲識箇中奇絕處 그 중에 빼어난 승경 찾고 싶은데  
 櫂歌閒聽兩三聲 뱃노래 두 세곡 한가롭게 들려오네

八曲風烟勢欲開 여덟 구비 연기바람 걷히려 하는데  
 鼓樓巖下水縈洄 고루암 아래 물은 물결만 휘도네  
 莫言此處無佳景 이곳 경치 볼 것 없다 말하지 마소  
 自是遊人不上來 이 때문에 구경꾼들 오지 않으리

九曲將窮眼豁然 아홉 구비 끝나려하니 앞이 확 트여  
 桑麻雨露見平川 우로에 젖은 桑麻 너머 평평한 시내  
 漁郎更覓桃源路 어부가 다시 무릉도원의 길 찾지만  
 除是人間別有天 이곳이 인간 세상의 별천지로다

김정, 「오계구곡」<sup>75)</sup>

梧溪山水蘊奇靈 오계의 산수에 靈妙함이 쌓였고  
 山自高高水自清 산은 높디높고 물은 절로 맑네  
 曲曲風光儘幽絕 굽이굽이 풍광 그윽하고 빼어나니  
 漁歌唱晚動新聲 어부들 저녁 뱃노래 새롭게 울리네

八曲澄泓數畝開 여덟 구비 맑고 넓은 못 이랑 밭 펼쳐져  
 小舫柔楫可沿洄 거룻배 연약한 돛으로 물가 거슬러가네  
 風花雪月無邊景 바람과 꽃, 눈과 달의 가이없는 경치인데  
 從古遊人幾箇來 옛부터 구경꾼들 몇이나 왔던가

74) 朱熹, 앞의 책, 권9, 「淳熙甲辰中春精舍閒居戲作武夷櫂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朱熹, 『朱子大全』(을해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A3747-307)에는 序詩의  
 結句가 ‘櫂歌閒聽兩三聲’으로 되어 있다.

75) 金徹, 앞의 책, 권1, 「梧溪九曲」

九曲林巒更蔚然 아홉 구비 숲은 치솟아 또한 울창하니  
 鳳凰高影蘸晴天 봉황대 높은 그림자 맑은 시내에 잠겼네  
 眞源滾滾來何自 진짜 물의 근원이 세차게 흘러오는지  
 我欲乘槎一問天 뗏목 타고 가서 하늘에 한 번 묻고 싶네

노봉의 시 10수 가운데 3편을 주희의 시 3편과 비교해 보면 시풍이 비슷하다. 노봉은 주희의 무이구곡가를 연상하면서 오계[오륙]의 일대를 중심으로 주희의 시에 차운한 형태로 서경(경물)을 읊은 것이니, 산수의 즐거움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제9곡 시의 말미에서 주희는 “어부가 다시 무릉도원의 길 찾지만, 이곳이 인간 세상의 별천지이다.”라고 마무리한 데 대해, 노봉은 “진짜 물의 근원이 세차게 흘러오는지 뗏목 타고 가서 하늘에 한 번 묻고 싶네.”라고 하여 일종의 道問의 형식으로 대처하였으므로, 주희를 본받고자 한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 3) 경의의 실천과 권계

榮川의 義山書院은 1664년에 창건하여 이개립을 제향하였는데 1799년에 노봉의 증조부인 학사 김응조를 추향하였다. 노봉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경의<sup>76)</sup>에 대한 의식을 표출하였다.

의산서원의 의산은 산 이름이 비슷한 데서 취한 것인데, 좌우의 夾室이 敬義와 集義로 되어 있어서 온통 의로움이다. 노봉이 어느 날 서원을 방문하니 서원의 구조는 조화를 이루었으나 방치되어 묵은 풀이 무성하고 황폐하였으므로 썩은 흙을 치워 작은 臺를 짓고 이름을 외방이라고 하며 「外方臺記」를 지었다.

76) 敬義의 학문 : 敬과 義는 『주역』 「坤卦 文言」에 나오는 말로서 안을 곧게 하고 (敬以直內) 밖을 바르게 하는(義以方外) 두 가지를 말한다. 일찍이 曹植이 ‘경의’ 두 글자를 신명처럼 섬겨서 「佩劍銘」을 지어 “안으로 밝히는 것은 경이고 밖으로 걸단하는 것은 의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라고 하여 중시하였다. [曹植, 『南冥先生文集』(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古朝46-가522), 권1, 「佩劍銘」.]

노봉은 부연하기를 외방이라는 말은 서원의 이름과 부합하였고, 또 『주역』 坤괘 文言에서 “의로움으로 밖을 방정하게 한다(義以方外).”라고 한 것과, 송나라 程頤가 “義가 나타나면 밖이 방정해진다(義形而外方).”라는 데서 근본을 삼았다고 했다.

지금 산, 방[室], 臺가 모두 實地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살펴보고 그 義를 생각한다면 그 유형으로 말미암아 무형을 체득할 것이니, 진실로 알고 실제로 실천하여 나감에는 문으로 말미암고 행함에는 길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타나고 밖에 드러난 것이 안에 근본하는 것이다.<sup>77)</sup>

인용문에서 山은 ‘義’를, 방[室]은 ‘敬義’와 ‘集義’를, 臺는 ‘外方’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실지의 이름을 살펴서 의로움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며 “이 서원에 놀러 오는 사람은 모두 이 臺에 오를 때는 안에 敬義室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방[室]에 들어 갈 때는 밖에 外方臺가 있음을 생각하여 몸에 체험하고 마음에 증험하라.”고 덧붙였다. 이 기문은 그 선조인 학사 김응조의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노봉의 형제자매 가운데는 이주인 申滄에게 출가한 누님이 있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다. 그 후 조카 申世模를 양자로 삼았는데 宗統을 중시하여 입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편지를 본다.

죽은 누님의 혼이 의탁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후사 세우는 것이 하루가 급한데도 불민하여 변변치 못했습니다. 괴로움과 질병이 거듭되고 세상의 번고가 계속되니, 한 번 가서 그 의논하여 결정된 것이 어떠한지 들을 수 없었고, 또 형이 둘째 아들 두기를 기다림에 말미암았던 까닭으로 머뭇거리며 미루어 온 지도 십 년이 넘었습니다. 형이 만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우는 뜻은 내가 누님을 위하는 것보다 덜하지 않

77) 金徹, 앞의 책, 권2, 「外方臺記」, “今夫之山也之室也之臺也, 皆實地也, 人能顧其名而思其義, 因有形而體無形, 眞知實踐, 如出由門, 而行由路, 則有諸內者形于外, 著於外者本乎內.”

고 도리어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자 즉시 결단하시니 조금도 疑難할 의사가 없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처리하는 것은 예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아마 종통을 중히 여기는 정성과 형을 위하는 뜻이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sup>78)</sup>

노봉의 누님이 상을 당했는데 후사가 없었다. 자형에게는 아우 하나 있으나 또한 독자를 두었으며, 친족 중에는 후사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자형의 하나 뿐인 조카를 누님 내외의 아들로 입계하도록 할 것을 명분과 의리의 입장에서 그 문중 사람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한 것이다.<sup>79)</sup>

이 논리는 송나라 程頤의 말씀 가운데 “禮에 맡아들은 남의 후사가 될 수 없으나 만약 형제가 없고 또 조상을 이을 宗이 끊기게 되면 당연히 조상을 이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다시 鄭述와 張顯光이 주고받은 논변과 李潤雨의 질의에 대한 정구의 답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義를 일으키는 큰 절목이라 하였다.

노봉은 벗의 조카를 포함하여 자식, 종질에게 학업을 권하고, 교훈과 권계가 될 만한 글을 남겼다.

그대의 편지를 보고 그대의 시와 글을 읽었는데 참으로 정을 묘사한 시가 또한 월등하게 뛰어나서 멍하게 하고도 남으니, 내 벗의 아이가 일찍이 학업을 이룬 것이 이와 같은 줄 짐작하지 못하였네. 오직 바라건대 더욱 힘써서 사업을 향상시키고 집안의 명성을 크게 떨치게.<sup>80)</sup>

78) 위의 책, 권2, 「與申善仲別紙」, “亡姉之魂無託久矣 立後一日爲急 而不敏無狀 重之以憂病 仍之以世故 不能一往以聽其義決之如何 亦由於待兄之有次胤 故因循遷就者餘十年矣 兄之爲伯兄立後之意 不減於弟之爲姉而反有重焉 故言出而即斷之 無少疑難底意思始知 士夫家處置 不踰於禮法 而倘非重宗之誠 爲兄之義 烏能若是乎.”

79) 위의 책, 권2, 「與申進士仲游」에서 김정이 신중유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선중(善仲)의 집안은 분후히 사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자형의 후사를 세우는 것은 하루가 급하나 일이 상례(常例)와 달라서 지금까지 억지로 끌려 다녔는데 마침 참고하여 증거 할 만한 기록이 있어서 선중에게 편지의 별지로 보냈사오니, 어른께서 마땅히 지도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중유(仲游)는 1684년에 생원·진사에 입격한 신덕함(申德涵, 1656-1730)의 자(字)이다.

이 글은 학업을 격려한 내용이다. 노봉이 具氏 성을 가진 벗과 대면한 자리에서 벗의 조카가 되는 구윤흥의 편지와 시문을 평한 후에 구윤흥에게 답장을 보낸 것이다.

종질 金瑞趾가 관례를 행할 때 준 편지를 본다.

‘성인이라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狂]가 되고, 미치광이도 생각하면 성인[聖]이 된다.’<sup>81)</sup>라고 한 것이 여기서 나누어지니, 옛날부터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여기에 전전공공하며 스스로 지키고자 하지 않음이 없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쌓은 덕이 있고 가풍은 먼 조상에서 근원하고 있다. 예를 따르고 법을 지키며 아름다운 가풍 이어받아 집안을 세워온 지 몇백 년이 되었으나, 지금은 뒤엎어진 것이 극심하고 자취가 끊어졌구나. 조상을 빛내고 후손을 계도할 책임이 오로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아무쪼록 힘쓰고 힘쓸지이다.<sup>82)</sup>

『주역』의 괘사와 『서경』의 내용을 들어서 훈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시 훈계하기를 “너무 여리면 유약함에 흐르기 쉽고 확고하지 못하면 뜻이 꺾이고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르기 쉽다.”라고 하며, 더욱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지 말며, 뜻을 세우고 토대를 정하여 집안의 명성을 계승하도록 가르쳤다. 편지를 써준 종질은 학사 김응조의 4대 曹孫이므로 기대한 바가 컸던 것이다.

말아들 김서절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학문을 권장하였다.

되도 선생[이항]이 자제를 공부하라고 山寺에 보내면서 시에 부쳐 이르기, “가장 좋기는 젊은 시절 산사의 즐거움이었으니, 푸른 창 깊은 곳에 등불 하나 밝힘이네(最愛少年山寺樂 碧牕深處一燈明).”<sup>83)</sup>라고 했

80) 위의 책, 권2, 「答具胤鴻」, “見君書讀君詩書 固寫情詩 亦絕倫悵神之餘 不料吾友之兒夙成若是也 惟願益勉向上事業大振家聲.”

81) 『서경』, 「周書」, ‘多方’에 “오직 성인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라고 하였다.

82) 金徹, 앞의 책, 권2, 「與堂姪瑞趾」, “克念罔念聖狂斯分 從古有爲者 未嘗不於此戰兢自持也 吾家世德家風淵乎遠矣 遵禮守範襲美服芳 成立門戶累百餘年 以至於今 墜覆甚矣 影響絕矣 光前啓後之責 專係於汝 汝其勉之哉勉之哉.”



다. 우리 선비들의 수많은 사업이 모두 이러한 가운데서 나왔으니, 아버지가 너에게 바라는 것 또한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sup>84)</sup>

인용한 시는 퇴도[퇴계] 이황 선생이 그 자제들에게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어준 것인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 자손들에게 학문을 권장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다.<sup>85)</sup> 노봉 역시 맏아들에서 열심히 할 것을 바라고 있다.

노봉이 옥천군수로 있던 1723년 겨울에 맏아들에게 부친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范文正公이 여러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난할 때 너희 어머니와 함께 우리 아버지를 봉양하였는데, 너희 어머니가 몸소 불을 때어 밥을 지었어도, (아버이는) 달고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드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후한 녹봉을 받고서, 아버지를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너희 어머니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한스럽게 여기는 점이다. 그러니 어떻게 차마 너희들로 하여금 부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sup>86)</sup> 내가 이것을 읽고 두 번 세 번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너희들의 사정 또한 상상해 볼 수 있으나 너의 편지 가운데는 자못 길 떠날 때 추위와 고생하는 뜻이 있기에 이것을 써서 경계로 삼는다.<sup>87)</sup>

83) 이 편지에서는 ‘最是少年山寺樂’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필자가 신빙할만한 문헌에 의하여 ‘最愛少年山寺樂’으로 고쳤다.

84) 金倣, 권2, 「答長子瑞節」, “退陶先生 送子弟做業山寺 寄詩曰 最愛少年山寺樂 碧牕深處一燈明 吾儒許多事業 盡從此中出 父之所望於汝者 亦豈淺淺哉.”

85) 서에 류성룡이 그 아들에게 한 「寄襦, 衫兩兒」(『西厓集』)를 비롯하여 고상안 『泰村集』, 권두경 『蒼雪齋集』, 정간 『鳴皋集』, 류원지 『拙齋集』, 김굉 『龜窩集』, 이수인 『懼庵集』 등에 내용이 보인다.

86) 『小學集註』, 「嘉言」, 廣明倫 편에 “范文正公 爲參知政事時 告諸子曰 吾貧時 與汝母養吾親 汝母躬執爨 而(吾親)甘旨未嘗充也 今而得厚祿 欲以養親 親不在矣 汝母亦已早世 吾所最恨者 忍令若曹 享富貴之樂也”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87) 金倣, 앞의 책, 권2, 「奇長子」, “范文正公 告諸子曰 吾貧時 與汝母養吾親 汝母躬執爨 而甘旨未嘗充 今而得厚祿 欲以養親 親不在矣 汝母亦已早世 吾所最恨者 忍令若曹 享富貴之樂 吾讀此未嘗不三復流涕 汝之情事 亦可以想得矣 汝之書中 頗有治行寒苦之意 故書此以誡之.”

노봉은 송나라 범중엄이 그 부모를 봉양하려 했으나 기다려 주지 않았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식들에게 효도하고 우애할 것을 가르치며, 비록 가난하더라도 의롭게 살 것을 권계하였다.

1734년에는 손자 金穆源(1713-1758)에게 준 시가 있다. 시제에 앞서 小序를 달기를, “갑인년 12월에 穆孫이 도심에서 돌아올 때 빙설로 길이 막혔으므로 길에서 창려 韓愈의 藍關의 韻에 따라 5언고시 1수를 지었는데 나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 운으로 지어서 훈계하여 힘쓰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道源出於天	道の 근원 하늘에서 나오지만
差毫謬以千	털끝만한 차이가 나중에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네.
行遠始庭除	먼 곳을 가려면 뜰부터 시작하고
定跟自幼年	바닥 디디고 똑바로 서는 것은 어릴 때부터라네.
臨履恒戰兢	전전긍긍하며 항상 조심하여야
平坦在目前	평탄한 것이 눈앞에 있을 것이네.
危道縱可畏	위태로운 길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寧憂墮一邊	어찌 한 쪽으로 떨어질 것을 걱정하라. <sup>88)</sup>

22살이 된 맏손자에게 공부하는 자세와 학문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훈계하고 격려한 것이다. 노봉의 이 같은 자손 교육에 힘입어 그 후손들은 선대의 유업을 잘 받들어서 가문을 빛내는데 일조하였다.<sup>89)</sup>

88) 위의 책, 권1, 「甲寅臘月穆孫 云云」.

89) 노봉의 가계에서 과거 합격자를 살펴보면 문과에서는 노봉을 포함하여 金相濶(1760-1812), 金宗泰(1800-1883) 등이 급제하였고, 사마시에는 金瑞節(1695-1745), 金瑞吉(1728-1799), 金宗慶(1768-1798), 金相鏞(1779-1846), 金宗煜(1779-1865), 金宗杰(1783-1866), 金宗熙(1786-1840), 金宗杰(1807-1891), 金泰璜(1809-1887), 金重淵(1827-1864), 金貞洛(1862-1935) 등이 합격하여 총 14인이다. 사마시에서는 주로 생원에 합격하였다. 또 문집·유고를 남긴 사람으로는 金相敏(1737-1802)의 『弦齋稿』, 金相濶(1760-1812)의 『避烟樓稿』, 金宗杰(1783-1866)의 『書巢集』, 金宗華(1758-1798)의 『嘯逸稿』, 金宗泰(1800-1883)의 『翠軒稿』, 金世洛(1854-1929)의 『古巖集』 등이 있다. 한편 『노봉선생문집』은 노봉의 현손 金宗熙(金宗杰)가 1863년에 간행하였다. 선대를 위해 효심을 다한 것이다.

#### 4. 마무리

노봉은 유년부터 『십구사략』을 배웠고 『주역』에 심취하였다. 초년에 『주역』을 읽고 지은 「至日讀易有感」을 보면 “작은 것이 가면 큰 것 오는데 날이 어찌 없겠으며, 어진 벗이 오니 떠 뿌리 뽑는 일이 정해지네(小往寧無日 朋來定拔茅).”라는 구절은 「泰卦」를 설명한 것으로, 군자의 도는 자라나고 소인의 도는 사라지니, 군자가 벗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어 길하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조정에 뜻 펼치기가 이롭지 못하니, 형통한 운세는 떨기진 뽕나무 매놓은 듯해야 하네(揚庭如自邑 亨運繫桑苞).”하는 구절은 「泰卦」와 「否卦」를 설명한 것으로, 힘으로 다투지 말고 다만 스스로 지키는 것이 막힌 운수를 그치게 하여 길함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는 운명과 때를 활용할 줄 알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고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그 증조부 학사 김응조의 문집 초고본을 갈무리하여 발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배움에 있어서는 사서삼경과 성리학 제서를 탐구하며,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것을 학문하는 자세로 삼았다. 9세의 어린 나이에 고을의 백일장에 장원하여 수령을 놀라게 한 바 있고, 약관이 조금 지난 나이에 이미 학문 뛰어난 선비로 조정에 추천된 바 있으며, 출사하여 승정원 假注書로서 사초를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속기하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함경도 도사로 있을 때는 災傷을 잘 분석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났다. 관직에 물러나서는 살고 있는 곳 주위에 方塘을 만들고 산수 자연을 즐기며, 송나라 주희 시에 차운하였고, 「무이도가」에 차운한 「오계구곡」 10수를 지어서 인간과 자연 간의 합일을 이루고자 했다.

4개 고을의 수령을 맡았는데 守令七事를 건물에 게시하는 일을 포함하여 목민관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추었다. 정승 이광좌, 심수현 등의 진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사람됨이 바르고 강직하며, 엄정하고 청렴하며 효행이 있었다. 강릉부사 때 수령 고과에 있어서는 강원감사 류복명으로부터 最[제일 잘하는 등급]의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이

탁월하였다. 강계부사로 있을 때는 권선징악을 표방하며 부역 균등과 균량미를 비축하였다.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때에는 손수 祈雨文 6편, 祈晴文 3편을 남기는 등 수령으로서 백성을 위하고자 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맹자의 三樂 정신에 따라 官學인 삼천서당을 설립하여 일반 평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고, 화북포의 축항공사를 추진할 때는 스스로 돌을 지고 나르는 등 백성의 고된 삶을 직접 체험하였다. 또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은 섬사람을 위하여 제문을 지어서 원혼을 달래는 등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로 보면 일찍이 범중엄이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길 일은 남보다 뒤에 즐긴다.”는 뜻의 先憂後樂을 실천한 목민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弘文錄에 뽑으려 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sup>90)</sup> 제주목사의 임기를 마치고 죽은 이듬해에는 호남어사 李道遠이 노봉의 善政한 사실을 조정에 褒啓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 일찍이 청백리의 錄選案에 들었으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지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는 南人이었으므로 아마 당색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후일에 영주 梧川書院, 제주 象賢祠 등에서 제향을 하였으므로 후인들이 그 업적을 기린 것이다.

노봉의 현실인식은 민본을 바탕으로 한 愛民에 있었고, 이름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산수지락을 추구하였으며, 敬義 가운데서 의로움을 우위에 두었고, 자손에게 義方으로 훈계하였다. 퇴계학맥을 계승한 선비였기에 퇴계가 그 손자들에게 가르친 학습방법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손 교육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노봉의 가게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기도 했다.

노봉의 문집 부록을 보면 노봉 사후에 李光庭을 포함한 51편의 만사와 의산서원 유생 張直方을 포함한 12편의 제문이 있다. 이 가운데는 제

90)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11월 14일(병인)에 보인 영의정 이광좌 진언을 보면 그가 전조(銓書)에 있을 때 김정을 홍문록에 선발하려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숙종실록』을 고증하면 이광좌가 이조참의로 재임할 때가 1711년이므로 이즈음 선발하려 했다고 본다.

주목의 삼천서당 유생, 橘林書院 유생의 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만제록은 노봉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후대 노봉의 家狀, 墓誌銘 등을 찬술할 때 참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았다.

노봉의 선조와 그 후손들은 풍산김씨를 일으키는데도 기여하였다. 학사 김응조는 1653년에 『追遠錄』 2권을 편성하여 시조로부터 15세까지의 世系와 사적을 기록하여 족보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봉의 장손 金穆源은 계보를 수집하여 손수 繕寫해둔 족보<sup>91)</sup>를 중심으로 그 아들 金相敏이 1782년에 『풍산김씨세보』(壬寅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sup>92)</sup> 가문을 빛내는데 일조한 것이다.

봉화 오록리는 노봉 김정이 개기한 이래 3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1996년에 세운 노봉선생의 마을 개척 300주년 기념 추모비가 있다. 근자에 전통문화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홍보는 하고 있지만,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추앙받았던 인물의 고장이기에, 노봉의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복원하여 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목사를 역임한 노봉을 주목하여 제주의 문화융성과 위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로 자리매김 하고, 현재 업적을 기리는 학술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91) 이 족보는 학호 金奉祖의 현손 金瑞雨(1678-1718)가 草集을 하여 일을 마치지 못하였는데, 김목원이 다시 보태어 수집(更加蒐輯)한 것이다.

92) 이 세보의 卷首에는 世孫侍講院[講書院] 司書 金叙九를 포함하여 金瑞必(노봉의 차남), 金繼源 등의 서문이 있고, 卷末에는 生員 金敏源의 발문과 金相敏(노봉의 장중손)의 後識가 있다.

참고문헌

- 『江陵府先生案』(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A2196-1).  
權斗經 編, 『退溪先生言行錄』(목판본, 도산서원), 권1, 「學問」.  
權好文, 『松巖先生續集』(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c13648-07-31), 권6.  
金洛禎 편, 『追慕錄』(석판본, 1990).  
김병덕 권근호 편, 『영남택리지』, 대보사, 2012.  
金相敏 등편, 『豐山金氏世譜(壬寅刊, 癸丑續刊 合綴)』, 영인본.  
金應祖, 『鶴沙先生文集』(목판본), 한국문집총간 자료.  
金在億 편, 『虛白堂世蹟』, 대지재소, 2000.  
金倣, 『蘆峯先生文集』(목활자본, 1863).  
金倣 著, 김익수 역, 『蘆峯文集』, 제주문화원, 2001.  
金昌協, 『農巖先生集』(목판본), 한국문집총간 자료.  
宋寅明 朴師洙 奉教纂輯, 『勘亂錄』(顯宗實錄字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A2156-1).  
李晩燾, 『響山先生文集』(목판본), 한국문집총간 자료.  
李彦迪, 『晦齋先生集』(목판본, 1631), 권2.  
李滉, 『退溪先生文集』(목판본), 한국문집총간 자료.  
장인진,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曹植, 『南冥先生文集』(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古朝46-가522), 권1  
朱熹, 『朱子大全』(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2古朝46-나9), 권2.  
朱熹, 『朱子大全』(을해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A3747-307), 권2.  
풍산김씨오록문중 편, 『전통문화체험마을 梧麓』, 2006.
- 고팔미, 「중국근체시법론(절구)」, 『중국학』 29, 대한중국학회. 2007, 72쪽.  
김영봉, 「조선조 무이도가에 대한 평가와 차운시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62, 열상고전연구회, 2018, 152-155쪽.  
김인규, 「다산 정약용의 공직자상과 공직윤리」, 『동양문화연구』 20, 동양문화연구원, 2015, 82-83쪽.  
김태완, 「朱熹 格物致知論의 사상사적 意義」, 『동양철학연구』 95, 동양철학연구회, 2018, 140쪽.  
張仁鎭, 「새로 발굴된 李重慶의 梧臺漁父歌」, 『圖書館學』 10, 한국도서관학회, 1983, 149-188쪽.  
최형록, 「邵雍의 觀物사상과 자연과의 소통 詩學 연구」, 『중국학』 33, 대한중국학회, 2009, 250쪽.  
홍동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독해법과 공직자의 청렴」, 『다산과현대』 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285쪽.

노봉 김정의 목민관으로서의 삶(장인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8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 자료집」, 『21세기 제주리더 노봉을 통해 배우다』(2014. 4. 8), 23-25쪽.

한국고전번역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문집총간》 등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ABSTRACT

## The Governing of People by Nobong Kim Jung.

Chang, In-jin

This article is Nobong Kim Jung and “Governing of People”.

Nobong Kim Jung explored books on Neo-Confucianism. His approach toward learning was to contemplate new ideas and reflect on flaws. He came into first place in his village’s writing contest at the age of 9, surprising the leader; a little past the age of 20, he was invited to the governor’s office as an excellent academic scholar; he was recognized for his skills to transcribe exactly when he recorded the Sacho (史草) as the Seungjungwon Gajuseo (假注書); when he was the civil servant of Hamkyung-do, he gained a reputation for analyzing disasters aptly and processing them swiftly. After retiring from government posts, he built a square pond around his living area, enjoyed mountainous nature, borrowed the words of Zhu Xi of the Song Dynasty to write poems, borrowed words from the “Muidoga,” (武夷權歌) and composed 10 poems of the “Ogyegugok,” (梧溪九曲) aiming to achieve unity between humans and nature.

When he was in charge of governing the four villages, he had all the virtues of a mokmingwan (牧民官). There were evaluations of him as being well-mannered, upright, strict, righteous, and filial in the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and when he was the prefectural busa (府使) of Gangneung, he was assessed by the Gangwon Provincial Governor with the highest level che (最), displaying skills of excellency. As the prefectural busa of Ganggye,



he achieved equality in compulsory labor and accumulated rice for the military, encouraging the good and punishing the evil; as the moksa (牧使) in Jeju, he left six chapters of kiwoomun (祈雨文) and three chapters of kichungmun (祈晴文) himself; as such, it is possible to examine his will to serve the people as a ruler. He established Samcheonseodang (三泉書堂)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ordinary people, and when implementing the harbor works of the Hwabukpo (禾北浦), he experienced the hard lives of the people by carrying stones on his own. He also showed a compassionate attitude for the people by building a memorial service for the islander who had drowned after his boat was turned upside down and laid the revengeful spirit to rest.

The following year after his term as the commissioner of Jeju had been finished and died, he was nominated for ruling wisely by the Honameosa (湖南御史), but the nomination was unsuccessful. He was also included in Cheongbaek-ri's Noksunan (清白吏錄選案) early on but was not chosen because of the opposition by those who did not like it. Due to he was the Namin (南人), so that may have been related to his party affiliations. However, the descendants honored his achievements as the memorial service was held in Yeongju's Ocheonseowon (梧川書院) and Jeju's Sanghyunsa (象賢祠).

Nobong's perception of reality was his love for the people based on his people-orientation. He pursued the Sansujirak (山水之樂), which emphasized substance rather than title, put righteousness before courtliness, and disciplined righteousness to his descendants. He was a scholar who inherited the Toegye academic genealogy, so he educated his descendants based on the learning method that Toegye taught to his grandsons. As a result, many talented individuals have been produced from the lineage of Nobong.

**Key words:** Nobong, Kim Jung, mokmingwan, Jeju-moksa, Ogyegugok, Muidoga, Zhu Xi, Toegye